

미래에셋증권 Daily

▶ TODAY'S REPORTS

FX Strategy

박희찬: 환율 상승세, 높아지는 상단

퀀트전략

유명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기업

주체별 매매동향

KOSPI: 외국인 (+)3,427억원 순매수, 국내기관 (+)83억원 순매수

KOSDAQ: 외국인 (+)423억원 순매수, 국내기관 (-)1,526억원 순매도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II

2021. 9. 28 (화)

리서치센터

KOSPI (9/27)	3,133.64P(+8.40P)
KOSDAQ (9/27)	1,034.82P(-2.21P)
KOSPI200 (9/27)	410.97P(+1.13P)
미국 DowJones지수 (9/24)	34,798.00P(+33.18P)
미국 NASDAQ지수 (9/24)	15,047.70P(-4.54P)
중국상해종합지수 (9/24)	3,613.07P(-29.15P)
NIKKEI225지수 (9/24)	30,248.81P(+609.41P)
유럽 STOXX600지수 (9/24)	463.29P(-4.21P)
독일 DAX지수 (9/27)	15,663.46P(+131.71P)
VIX (9/27)	17.77P(+0.02P)
원/달러 환율 (9/27)	1,176.55(-0.12)
엔/달러 환율 (9/27)	110.67(-0.06)
달러/유로 환율 (9/27)	1.17(0.00)
국고채 수익률(3년) (9/24)	1.58(+0.02)
미국채 10년 (9/27)	1.45(-0.01)
독일국채 10년 (9/27)	-0.24(-0.01)
금가격 (9/27)	1,757.50(+7.80)
구리가격 (9/24)	9,271.00(+20.00)
유가(WTI) (9/27)	74.84(+0.86)
국내주식형펀드증감 (9/21)	0억원
해외주식형펀드증감 (9/21)	0억원
고객예탁금 (9/24)	678,228억원(-16,654억원)
신용잔고 (9/24)	252,840억원(-696억원)
대차잔고 (9/24)	764,346억원(-5,428억원)

주: 현지 시간 기준

환율 상승세, 높아지는 상단

박희찬 hcpark@miraeeasset.com

손하연 hayeon_son@miraeeasset.com

연준 출구전략과 달러 강세

연준 금리인상 예상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음

- 연준 테이퍼링 스케줄은 비교적 선명해졌음: 올해 11월 시작, 내년 6월말 종료 예상.
- 금리인상 예상 시점은 점도표가 나올 때마다 앞당겨지고 있으며, 미국 인플레이 예상치 상황과 연계되고 있음.
- 기대 인플레이 상승세의 확산과 공급망 정상화 지연으로 인플레이 전망치 추가 상승 예상. 이는 연준 금리인상 예상 시점을 더 앞당기면서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

원화 상대 약세 지속

채권자금 유입세 약화와 연관됐을 듯함, 신흥국 통화 전반의 불안정성은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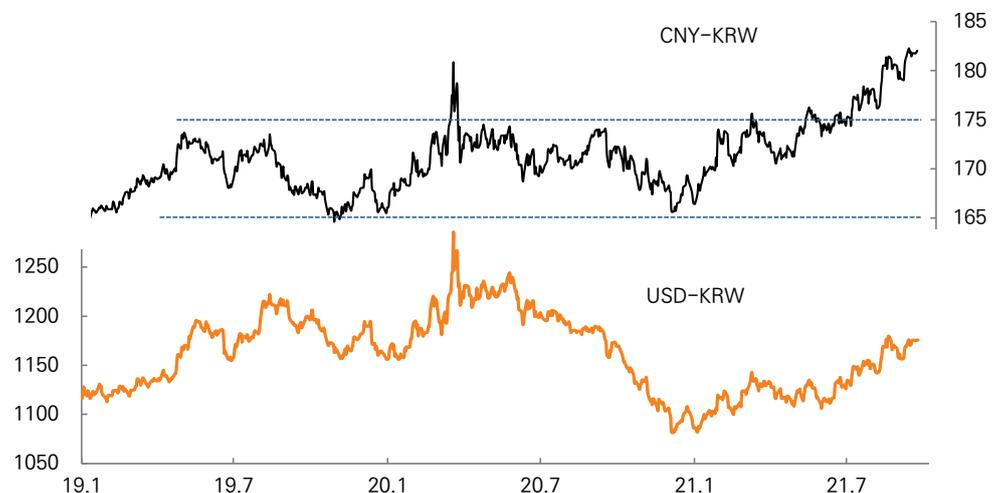
- 최근 3개월간 원화 상대 약세 국면. 8월 이후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세 둔화가 일조했을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채권순투자 잔고가 8월 이후 정체 상황.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에 따른 원화채권 자본이득 기회 축소와 FX 변동성 확대 등으로 채권자금 유입세는 당분간 제한될 전망.
- 다만, 헝가리를 파산 우려에도 위안화 가치 안정 등, 신흥국 신용위험은 크게 자극되지 않고 있음. 원화 가치 급락 리스크는 제한적이라 판단됨.

USD-KRW 전망

현 수준 1,175~1,180원 중심으로 추가 상승, 1,200원에 좀더 근접해 갈 전망

- 미국 인플레이 하향 안정화 지연, 연준 금리인상 경계감 상승 등으로 미국달러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둠.
- 다만, 원화 상대 약세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됨: 한국 외환보유액 증가세 유지 등 외환 수급이 크게 불안하지 않은 점, 위안화 가치가 안정적인 점 등 감안.

[그림] 원화 약세 국면: 위안화의 원화 환율은 180원대, 기존 박스권 상단과 괴리 확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달러 인덱스 상승세, 연준 출구전략 부담 반영

9월 FOMC: 테이퍼링 가이드라인 제시, 2022년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플랜이 발표될 전망. 파월 의장은 ‘그런대로 괜찮은(decent)’ 고용지표가 전제조건이라 언급, 테이퍼링 발표의 허들이 그리 높지 않음을 시사. 9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저조했던 8월 일자리 증가 속도(월간 +23만 건)보다 더 나쁘지 않으면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에 들어갈 수 있을 듯함.

파월 의장 발언을 종합해 보면, 테이퍼링은 11월 FOMC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어 내년 6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스케줄이 될 전망. 즉, 현재 월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매입 정책은 매월 150억 달러씩 축소되어 내년 6월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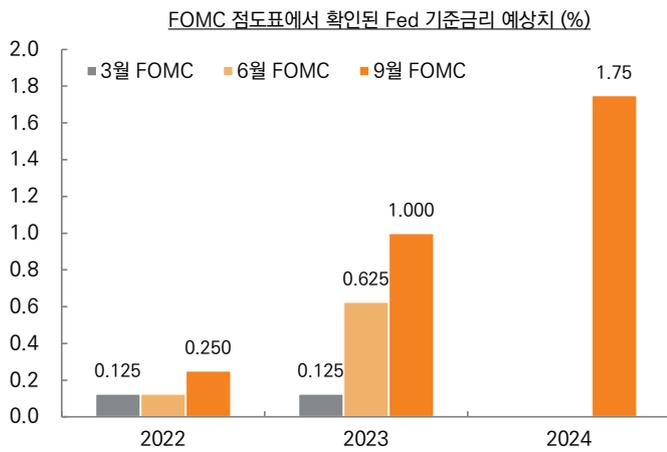
2014년 테이퍼링이 월 85억 달러 속도로 진행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 테이퍼링은 2배에 가까운 속도인 것. 이미 잘 알려진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이러한 속도 차이를 거론할 수 있음.

아울러, FRB의 첫번째 금리인상 예상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도 달러 강세를 압박. 점도표 변화를 보면, 3월 FOMC까지는 첫번째 금리인상이 2024년으로 예상되었지만, 6월 FOMC에서는 2023년 두 차례 금리인상으로 중위값이 변경되었고, 9월 FOMC에서는 2022년 금리 인상과 동결 의견이 정확히 9:9로 갈렸음.

인플레 전망 변화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 앞당기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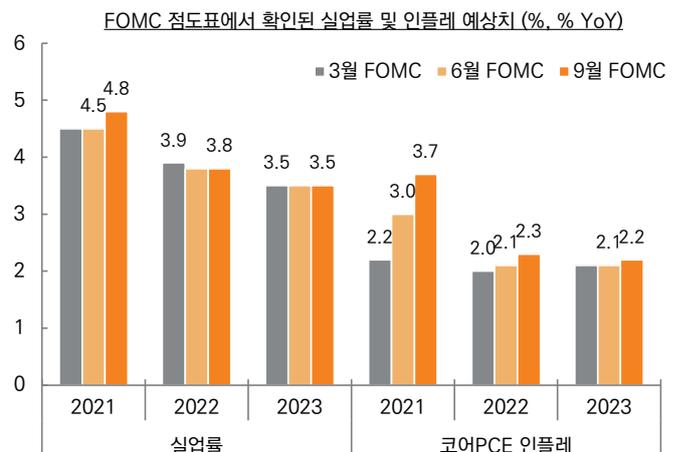
주지하듯이, 연준에게는 완전고용과 안정적 인플레 관리라는 dual mandate가 있음. 그런데, 지난해 차례 점도표를 보면 실업률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인플레 전망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 되어 왔음. 아래 그림에 정리된 바와 같이, 올해 인플레 전망치가 크게 올랐고, 2022~23년 인플레 전망치도 동반 상승. 결국 인플레에 대한 인식 및 전망 변화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가능.

그림 1. Fed 기준금리 전망치 상황, 첫번째 인상 시기 앞당겨지고 있음



자료: Federal Reserv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연준의 미국 실업률 전망 하향은 없는 반면, 인플레 전망은 상향



자료: Federal Reserv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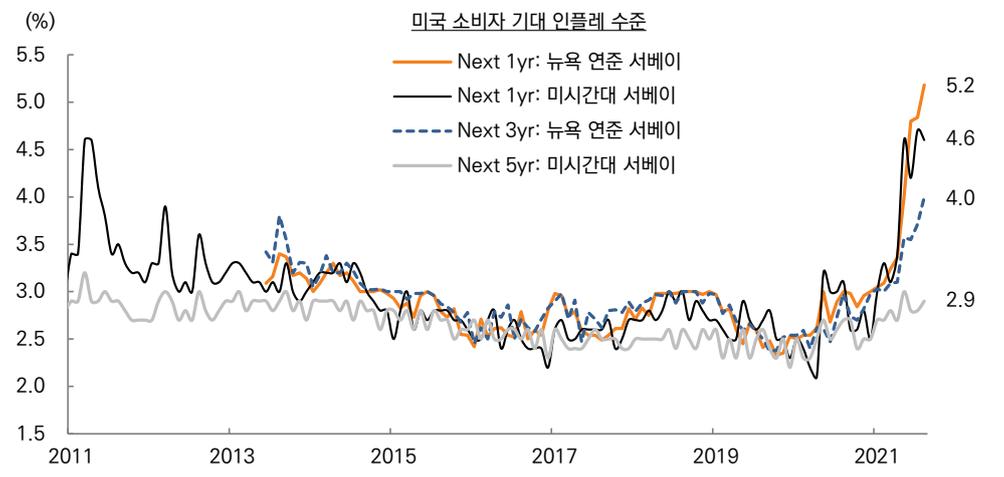
인플레 전망 추가 상승 가능성과 기대 인플레 상승세

잘 알려진대로 연준은 최근 인플레 급등세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위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플레 전망치의 상황도 동반되고 있음. 지난 7월말 FOMC 의사록을 보면, 공급망 병목 현상에 주로 기인하는 인플레 상승 압력이 기존 판단 대비 느리게 해소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됨(... recent data pointed to a greater risk that the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that had resulted from supply-related issues would unwind more slowly than the staff's baseline projection assumed).

여기에 더해, 무엇보다 중요한 소비자 기대 인플레는 계속해서 상승세. 특히, 단기 영역에서 중기 영역으로 높아진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함. 이는,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플레 상승세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

이 같은 인플레 전망의 추가 상승 요인들을 고려할 때, 향후 기준금리 인상 전망의 동반 상승 또는 첫번째 인상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겠음.

그림 3. 미국 소비자 인플레 기대심리 상승세, 3년 중기 영역 기대 인플레도 빠르게 상승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연준 베이지북에 반영된 인플레 상승 압력 정황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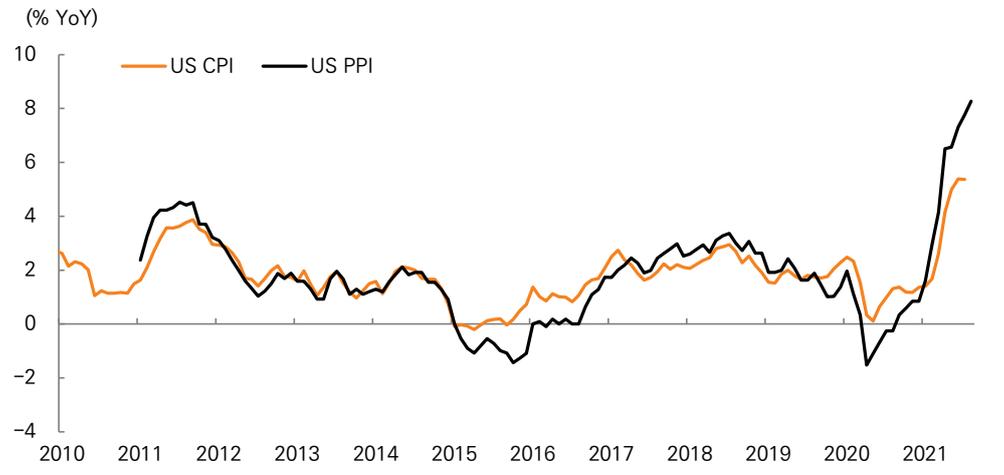
9월 8일 발표된 연준 베이지북을 통해서도 미국 인플레가 단기간 내 안정되기 어려운 여건임을 잘 확인할 수 있음. 다음은 베이지북에서 발췌한 인플레 관련해서 정리된 주요 코멘트들임.

- ✓ 인플레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Inflation was reported to be steady at an elevated pace).
- ✓ 자원 공급 부족에 따른 비용 상승 압력은 일부 지역/산업에 국한되지 않은 광범위한 현상(With pervasive resource shortages, input price pressures continued to be widespread)
- ✓ 가격 급등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핵심 자원 확보에 애로(Even at greatly increased prices, many businesses reported having trouble sourcing key inputs).
- ✓ 높아진 비용 부담을 제품가격으로 전가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있음(Some Districts reported that businesses are finding it easier to pass along more cost increases through higher prices).

정리하자면, 현 상황은 하반기 인플레이 안정을 기대했던 일부 낙관론적 의견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원가격 급등이 제품가격 상승으로 전가되는 등의 이유로 향후 인플레이가 더 높아질 위험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됨.

지난 8월 미국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년비 8.3%에 이룸. 베이지북에서 확인된 대로, 이러한 생산자물가 급등은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라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재차 오름세를 띠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음. 실제로, 중고차나 여행 관련 소비 물가(항공료, 숙박료 등) 외에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이 조금씩 확인되는 상황. 물론, 아직까지 인플레이 상승세가 확산되지 않은 영역도 다수 존재.

그림 4. 미국 생산자물가 상승률 가파른 오름세,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전환을 어렵게 할 것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인플레이 전망 및 Fed 기준금리 전망 변화가 향후 외환시장 핵심변수

대부분의 미국 인플레이 전망은 올해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 하향 안정화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인플레이 하락세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전망치의 상황은 불가피해짐. 현재 일자리 부족, 재고 부족, 공급망 회복 지연,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 수준 지속,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및 운임 상승세 등의 상황은 인플레이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음을 의미. 이에 따라, 12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 예상치가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 그리고 2022년 기준금리 인상 의견이 동결 의견보다 우세해질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음.

테이퍼링 기간 동안에는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지지 만큼 인플레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FRB 금리인상 예상 시점이 좀더 앞당겨진다고 해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 전망. 다만, 대부분 신흥 시장의 낮은 외환시장 자유도를 고려할 때 신흥국에서 자금을 환수하는 작업은 선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결국, 완만한 속도의 신흥국 통화 약세와 미국달러 강세 흐름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원화 상대 약세 국면, 향후 전망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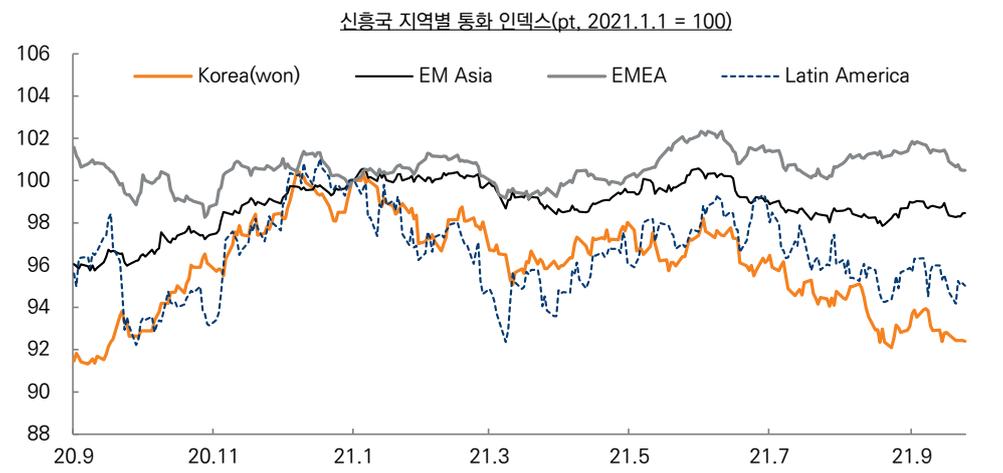
미국달러의 완만한 절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최근 1~6개월 구간에서 달러 대비 절하 통화가 다수. 원화는 상대 약세, 최근 3, 6개월 구간에서 아래 정리된 주요 통화 중 하위 20%에 위치.

표 1. 미국달러 대비 각 통화 절상률(%), 최근 3개월 절상률로 정렬

전체 국가(단위: USD)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Israeli Shekel	0.93	1.53	4.15	8.81
Indonesian Rupiah	1.12	1.17	1.12	4.31
Indian Rupee	-0.01	0.69	-1.61	-0.11
Taiwanese Dollar	0.72	0.57	3.15	5.36
Japanese Yen	-0.85	-0.03	-1.03	-4.69
Chinese Yuan	0.09	-0.15	1.16	5.53
Russian Ruble	1.10	-0.72	4.03	7.48
Malaysian Ringgit	0.08	-0.74	-0.97	-0.41
Swiss Franc	-1.45	-0.80	1.56	0.39
Singaporean Dollar	-0.57	-0.84	-0.60	1.77
Norwegian Krone	1.54	-0.98	-0.11	11.57
Mexican Peso	0.74	-1.14	2.64	11.38
Turkish Lira	-5.81	-1.15	-8.56	-13.57
British Pound	-0.69	-1.51	-0.87	7.24
Euro	-0.64	-1.80	-0.63	0.77
Swedish Krona	-0.12	-1.85	-0.15	5.51
Canadian Dollar	-0.25	-2.85	-0.59	5.80
Polish Zloty	-1.30	-3.78	0.12	-0.56
South Korean Won	-0.65	-4.16	-4.02	-0.36
Australian Dollar	-0.68	-4.32	-4.91	3.29
Thai Baht	-1.86	-4.43	-6.56	-4.98
South African Rand	-1.46	-5.32	0.29	14.66
Chilean Peso	-1.28	-7.46	-7.99	-0.76
Brazilian Real	-2.45	-7.50	7.92	4.28

주: 데이터는 9월 24일 (주말)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지난 3개월간 원화 약세는 중남미 통화 약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됨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원화 상대 약세 지속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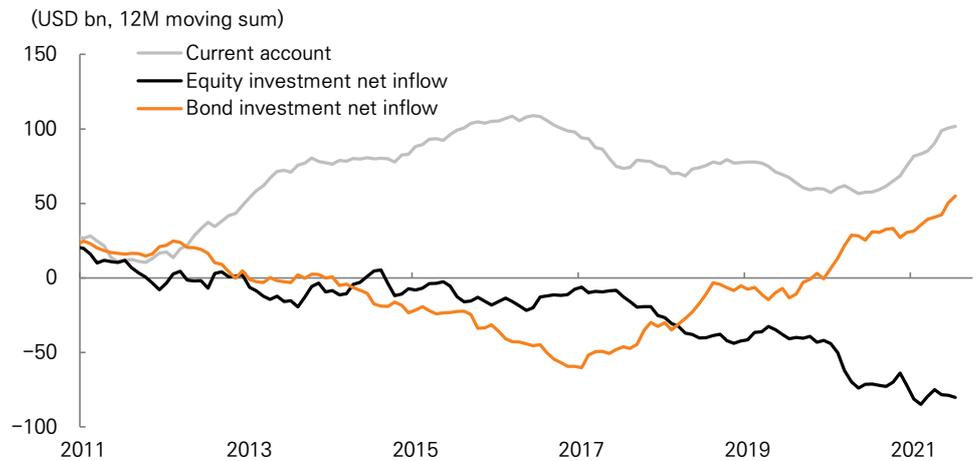
원화 약세 관련해서 중국 헝다그룹 파산 리스크도 고려할 수 있지만, 위안화가 안정적이고 아시아 통화들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 외환시장 파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그보다는 외국인의 원화 채권 매수세 약화에 주목할 필요.

2017년 이후 국제수지표상 중요 특징 중 하나는, 주식자금 순유출이 확대되어 왔지만 채권자금 순유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것을 상당 부분 상쇄해 냈다는 것임. 가장 최근 발표된 7월 국제수지표 까지도 이런 상황은 잘 확인됨. 그런데, 8월 이후 두 달 가까이 외국인들의 원화채권 순투자 잔고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음. 즉, 채권자금 유입세가 약해져 주식 자금 유출을 상쇄해내지 못하면서 원화 상대 약세가 야기됐을 수 있는 것.

외국인들의 채권 순매수 약화와 관련해서는, 첫째, 한국은행 금리 인상 기조로의 선회로 인해 원화 채권 자본이득 기회가 줄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둘째, 8월 이후 환율 불안정성 증가가 채권 자금 유입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겠음.

다만, 채권자금 유입세가 조금 약화된 상태로 당분간 유지되더라도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다시 확대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외환 수급 여건이 가파른 원화 약세 위험을 시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됨.

그림 6. 국제수지표 분해: 주식투자자금 순유출 규모 확대 vs. 채권투자자금 순유입 규모 확대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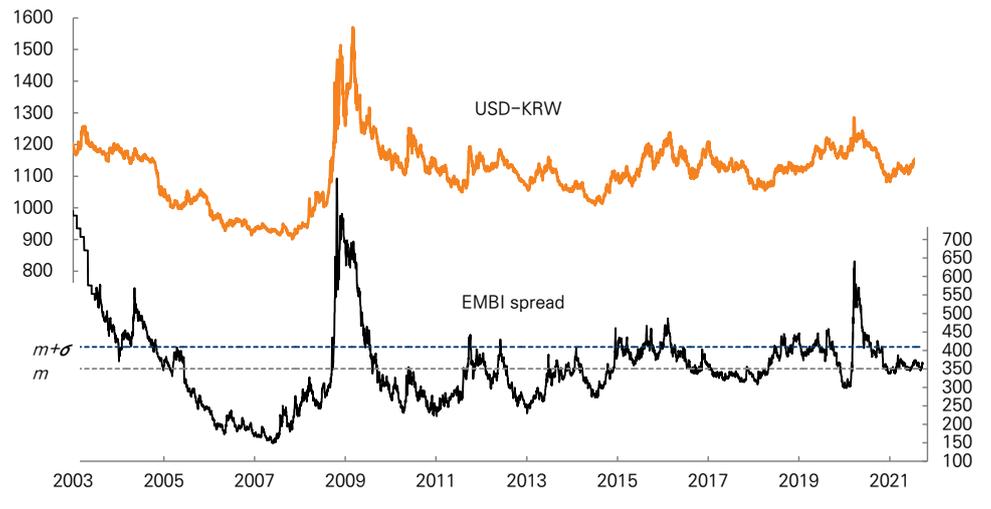
그림 7. 외국인의 원화 채권 순투자잔고 증가세는 8월 이후 크게 둔화됨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끝으로, 원화 가치 급락 위험을 점검하는데 유용한 EMBI 스프레드는 여전히 안정적. 비록 FRB 금리인상 예상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으나, 양적완화 종료 후 금리인상이라는 통화정책 정상화 방침이 명확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유동성 회수가 자극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지는 않은 점,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 선제적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면서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는 점 등이 EMBI 스프레드 안정에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8. EMBI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향후 환율 전망

미국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FRB 금리인상 예상 시점이 좀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점은 달러 추가 강세 압력을 의미. 이에, 연말까지 달러 환율은 현 수준 1,175~1,180원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200원을 지향하는 모습이 예상됨.

다만, 지난 3개월간 계속된 원화 상대 약세는, 한국 외환 수급 여건이 크게 불안하지 않고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점, 위안화 가치가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원화의 가파른 약세 지속되기 위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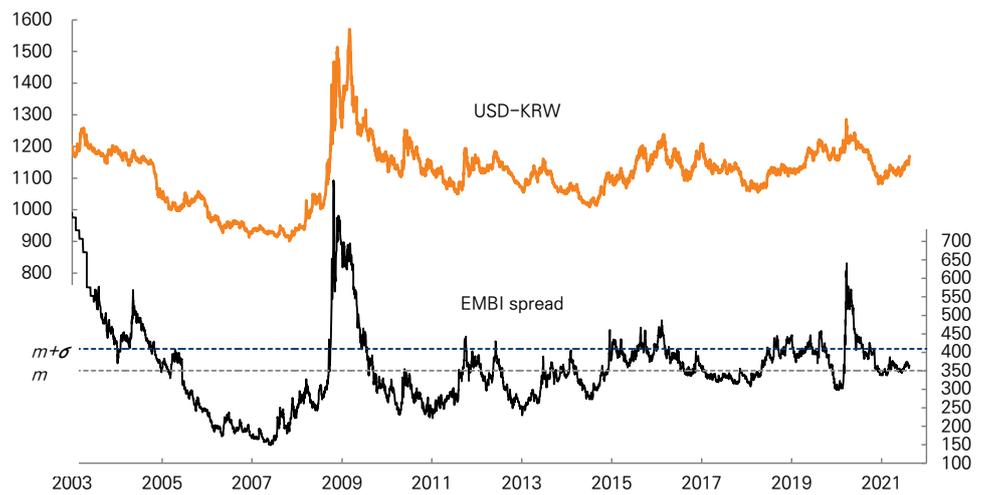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주목. 하나는 연준 출구전략 이슈, 다른 하나는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

첫째, 연준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테이퍼링 개시 시점이 빠르면 10~11월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음. 아직은 컨센서스 뷰가 아니지만, 이것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테이퍼링 속도 또한 빠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 즉, 연준 출구전략 속도 불안감이 빠르게 커진다면 원화의 가파른 약세가 지속될 수 있음.

둘째, 신흥국 신용위험을 보여주는 EMBI 스프레드가 장기평균 대비 1표준편차를 상회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 때 원화의 가파른 약세가 이어질 수 있음.

하반기 중 두 조건이 성립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두 가지 조건 모두 성립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원화 가치 급락세가 이어질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림 9. 달러의 원화 환율은 기존 박스권 상단에 근접, 위안화의 원화 환율도 연초 이후 꾸준한 오름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기업

유명간 myounggan.yoo@miraeeasset.com

황지애 jiae.hwang@miraeeasset.com

-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이익모멘텀은 긍정적.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개월, 3개월간 각각 +1.0%, +6.1% 상향 조정
- 그러나 2022년 이익모멘텀이 둔화. 1개월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0.7% 하향 조정(반도체: -3.2%, 반도체 제외 +0.7%)
-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분기, 연간 실적 컨센서스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예: 어닝서프라이즈 후 향후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 올해, 내년 실적 컨센서스가 함께 상향 조정이 되더라도 변화율 차이에 따라 주가 차별화가 날 수 있는 시기
- 내년 실적 컨센서스 변화율이 올해 변화율보다 큰 기업의 주가가 유리할 전망. 애널리스트가 내년 업황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음

3분기 이익모멘텀은 긍정적. 2022년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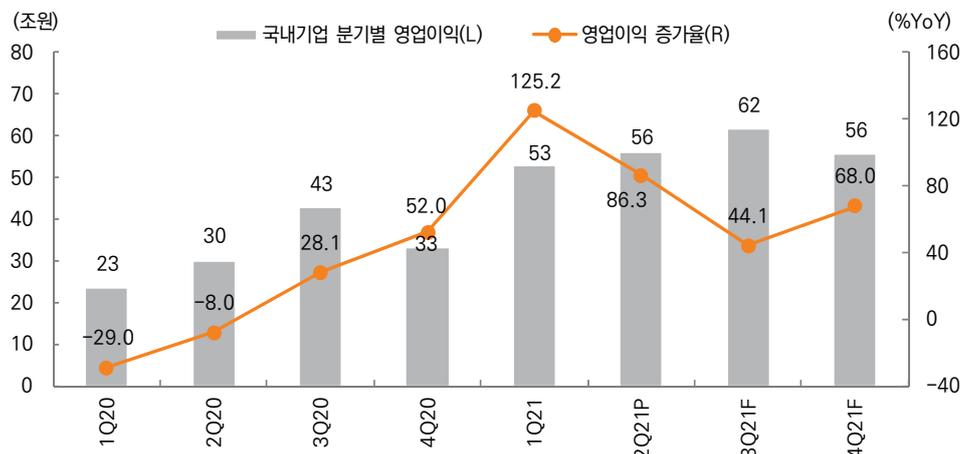
10월 첫째 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2021년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61.5조원(+44.1%YoY)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컨센서스가 존재하는 332개 기업 기준).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각각 39.2조원(+44.2%YoY)으로 높은 실적 증가율이 기대된다(그림1 참조).

과거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대부분 예상보다 부진했다. 2012년 이후 2020년 3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했다(2012년 이후 평균 -7.5% 하회). 또한, 1분기와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 비율과 비교해 봐도 부진했던 분기다(그림2 참조).

그러나 2021년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적 시즌 전에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3분기 실적 중에서 유일하게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2020년에도 3분기 실적 시즌 전에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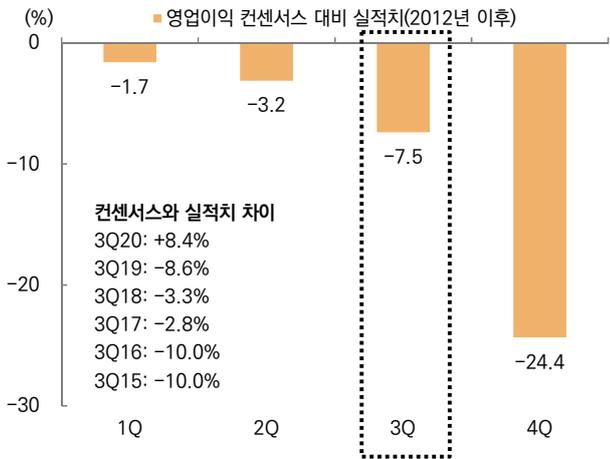
최근 3분기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개월, 3개월간 각각 +1.0%, +6.1% 상향 조정됐다(반도체 업종 제외 각각 +0.8%, +5.7%). 업종별로 보면, 철강, IT하드웨어, 운송, 건강관리, 반도체, 비철 금속, 건설 업종의 3분기 실적 상향 조정 폭이 컸다(그림5,6 참조).

그림 1. 국내 기업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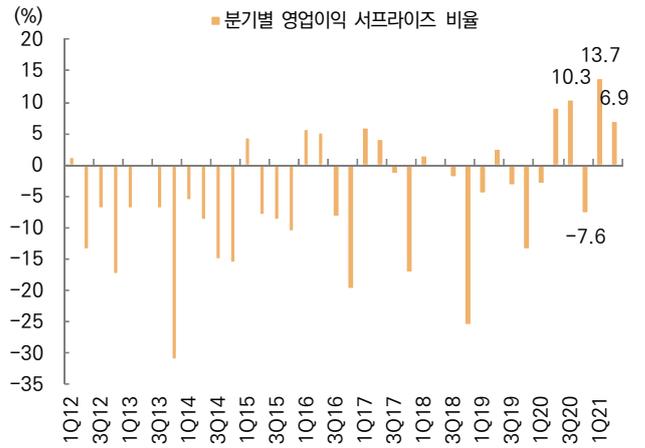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국내 기업 분기별 평균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영업이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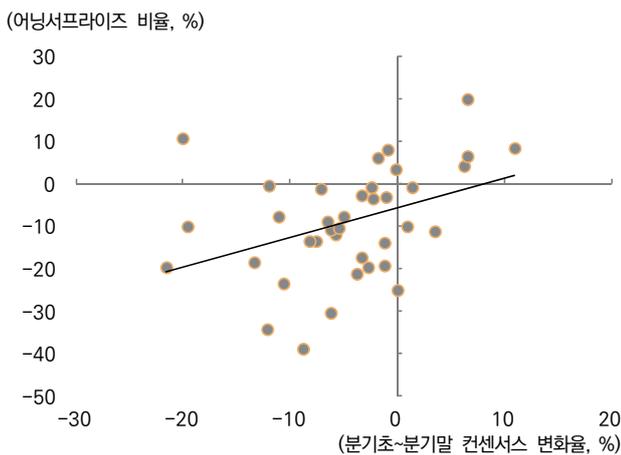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3개 분기 연속 어닝서프라이즈 달성 여부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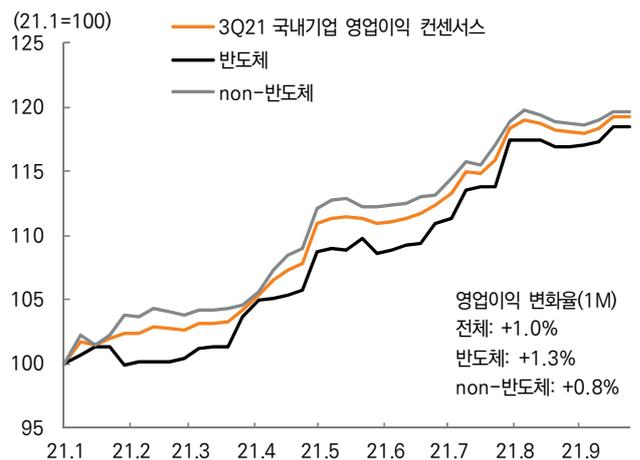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실적 시즌 전 컨센서스 상향 조정→어닝서프라이즈 확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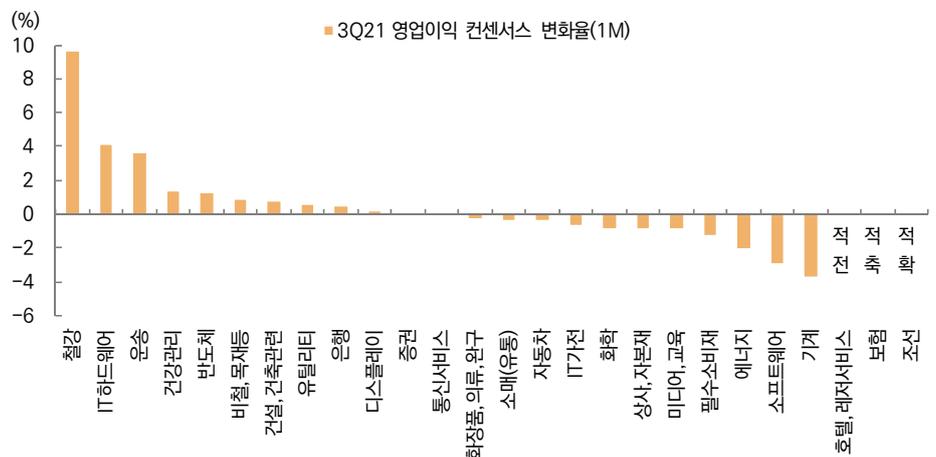
주: 영업이익 기준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국내 기업들의 3Q21 이익모멘텀은 긍정적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업종별 3Q21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변화율(1개월 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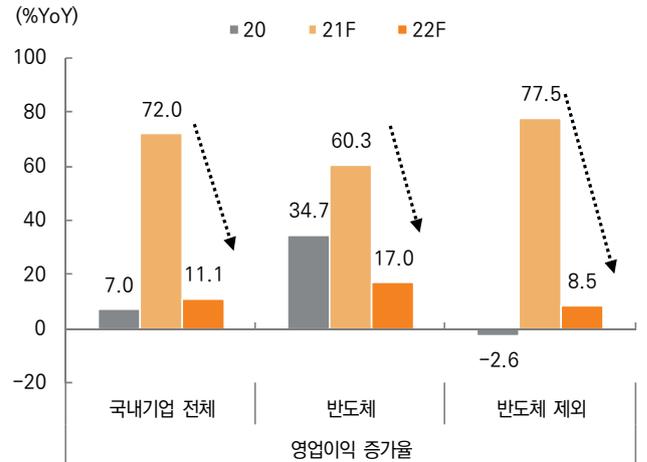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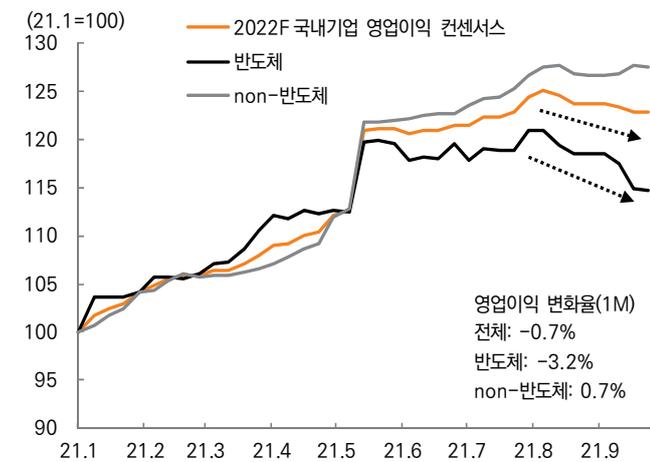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이번 3분기에는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3개 분기 연속 어닝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기업들이 3개 분기 연속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경우는 없었다(참고: 2005년 이후 2개 분기 연속 어닝서프라이즈 총 3차례, 2016년 1분기~2분기, 2017년 1분기~2분기, 2020년 1분기~2분기)

그러나 올해 3분기와는 다르게 2022년 이익모멘텀은 둔화되고 있다. 최근 1개월 동안 2022년 합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0.7% 하향 조정됐다(반도체: -3.2%, 반도체 제외: +0.7%). 아직까지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이익모멘텀이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해 +72.0%에서 +11.1%로 크게 둔화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그림7,8,9 참조).

그림 7. 국내기업 2022년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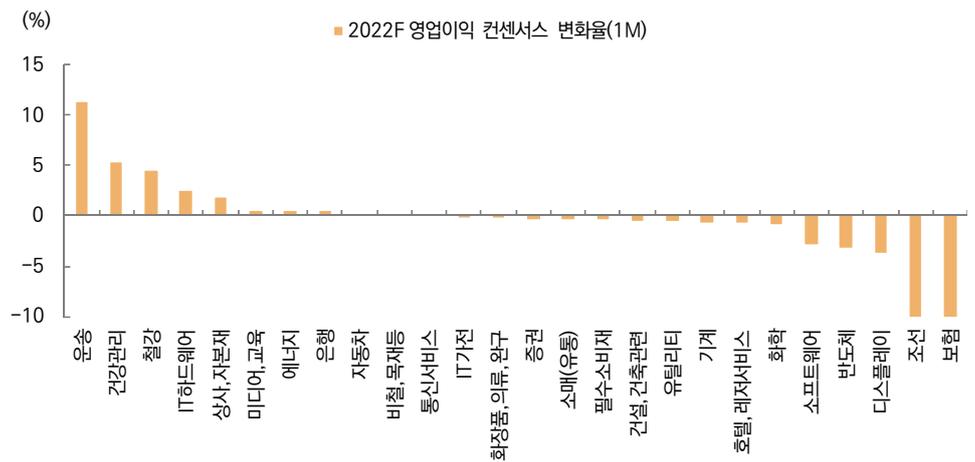
그림 8. 2022년 영업이익의 증가율 둔화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업종별 2022년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변화율(1개월)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컨센서스 방향성보다 변화율의 차이가 중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분기, 연간 실적 컨센서스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당해 연도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면 차기 연도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된다. 해당 분기에 어닝서프라이즈가 발생하면 다음 분기 실적이 같이 상향 조정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2021년, 2022년 실적 컨센서스가 함께 상향 조정이 되는 기업이라도(=방향성이 같더라도) 상향 조정 폭에 따라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다. 특히, 올해 3분기 이익모멘텀 개선에도 내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컨센서스의 방향성보다는 변화율의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컨센서스 변화율보다 2022년 컨센서스 변화율이 큰 기업은 주가가 유리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애널리스트가 올해보다 내년 업황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2022년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더라도 변화율이 작다면 내년 업황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확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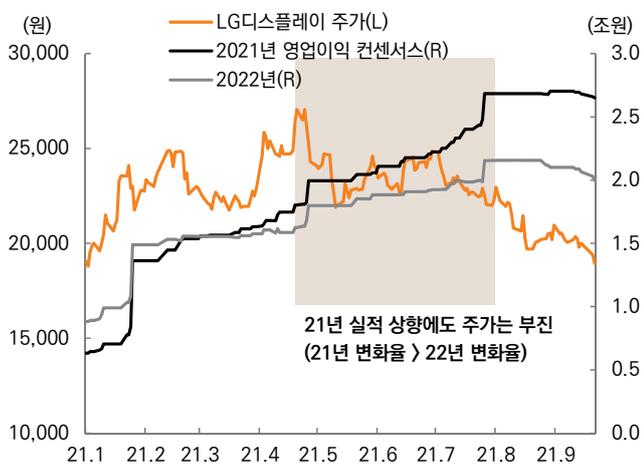
2021년 실적 상향 조정에도 주가가 부진했던 LG디스플레이를 예로 들 수 있다. LCD 패널가격 상승 및 OLED 부문 턴어라운드 기대로 LG디스플레이의 2021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연초 6,100억원 수준에서 4월 말 약 2조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됐다. 같은 기간 동안 LG디스플레이의 주가도 약 40% 상승했다(1Q21 어닝서프라이즈 비율: +5.6%).

그러나 4월 말 이후 LG디스플레이의 컨센서스는 상향 조정이 지속됐지만 주가는 하락했다(2Q21 어닝서프라이즈 비율: +18.5%). 전사 실적을 견인했던 LCD 가격 상승 사이클 둔화 우려 때문이었다.

LG디스플레이의 2021년, 2022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율 차이를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LCD 가격 상승으로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내년 업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확신이 낮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월 말~7월 말 기간 동안 2021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5% 상향 조정됐지만 2022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0% 상향 조정되는데 그쳤다(그림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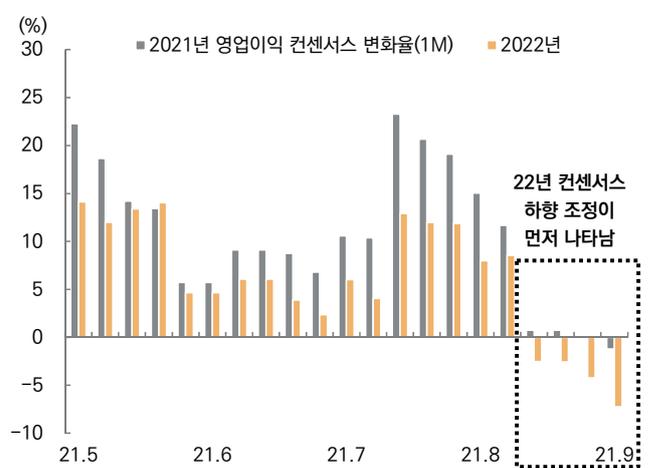
최근 LCD 패널 가격 하락을 반영하면서 이익모멘텀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1년, 2022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최근 1개월 간 각각 -1.2%, -7.3% 하향 조정됐고 주가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그림11 참조).

그림 10. LG디스플레이 주가와 21년, 22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21년, 22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율(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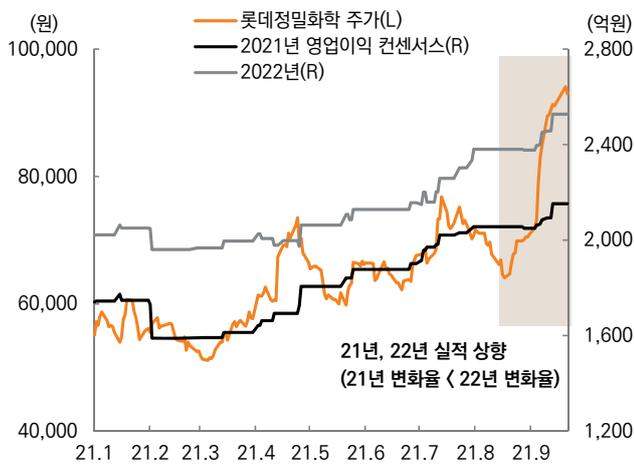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롯데정밀화학은 전방 수요 증가 및 공급부족에 따른 주력 제품(가성소다, ECH)들의 가격/스프레드 강세로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턱어라운드했다. 연초 이후 주가도 약 +70% 상승했다.

7월 중순 이후 주가가 부진했지만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655억원, +153%YoY)이 기대되면서 9월 들어 +33%의 높은 주가상승률을 기록 중이다(9월 24일 금요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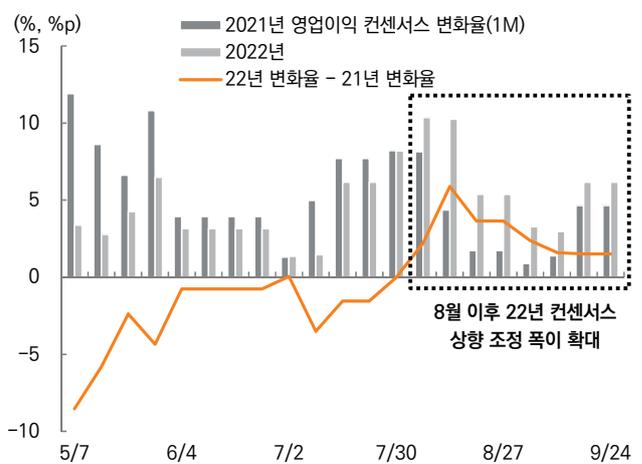
<그림 13>을 보면, 8월 이후 롯데정밀화학의 2022년 컨센서스 변화율이 2021년 컨센서스 변화율을 앞서 가기 시작했다(1개월 변화율 각각 +4.7%, +6.2%). 2021년 하반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율 +8.4%(3분기: +10.5%, 4분기 +6.3%)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롯데정밀화학의 주가 강세는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업황이 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 롯데정밀화학 주가와 21년, 22년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추이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21년, 22년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변화율 및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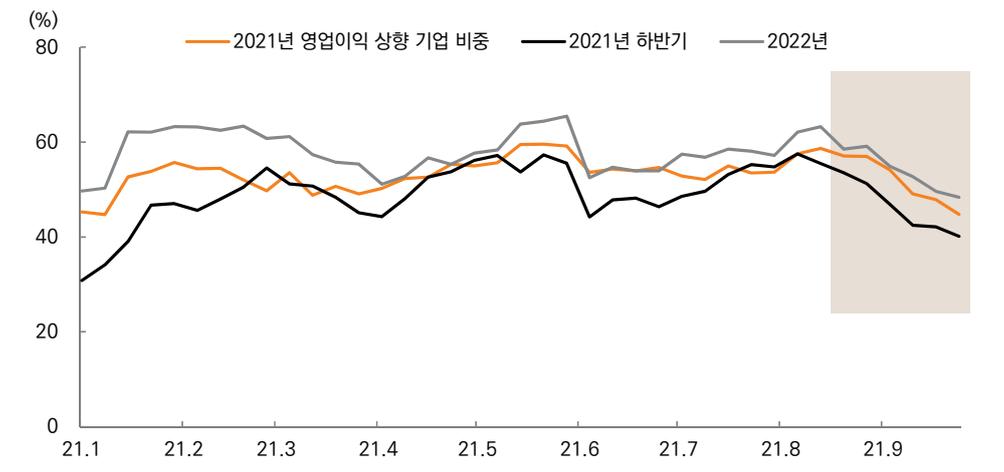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국내 기업 내에서 2021년, 2022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 비중은 각각 44.8%, 48.3%로 8월 중순 이후 하락 추세다. 또한,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 중에서 2021년 변화율 보다 2022년 변화율이 큰 기업 비중은 23.3%로 크게 낮아진다. 2021년 하반기 변화율 보다 2022년 변화율이 큰 기업은 14.7% 수준이다. 희소성 관점에서도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그림14,15,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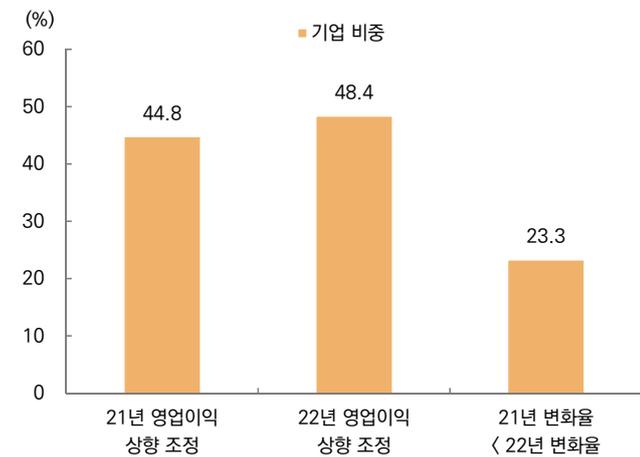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이익모멘텀이 긍정적인 기업 내에서도 올해 컨센서스 변화율보다 내년 컨센서스 변화율이 큰 기업들의 주가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14. 국내 기업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향 조정 기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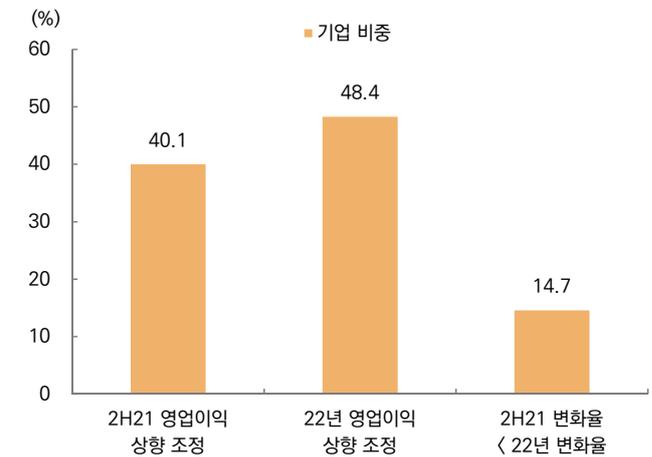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21년 컨센서스 변화율 대비 22년 변화율이 큰 기업 비중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2H21 컨센서스 변화율 대비 22년 변화율이 큰 기업 비중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올해보다 내년 전망이 더 긍정적인 업종 및 기업

시장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의 2022년 컨센서스 하향 조정으로 2022년 이익모멘텀이 부진한 모습이다. 대형주보단 중소형주의 내년 전망이 더 긍정적이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 상사/자본재, 건강관리, IT하드웨어, 철강, 건설 업종의 2022년 변화율이 2021년 변화율보다 높다(표1 참조).

표 1. 올해보다 내년 전망이 더 긍정적인 업종 (%, %p)

업종명	영업이익 증가율(YoY)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율(1M)				
	3Q21	2021년	2022년	3Q21	2H21	2021년(A)	2022년(B)	차이(B-A)
대형주	49.2	78.0	9.9	1.2	0.9	0.0	-0.7	-0.7
중소형주	21.9	51.3	21.9	1.0	1.2	0.3	0.9	0.6
운송	392.7	379.1	3.5	4.3	4.3	5.7	10.7	5.0
상사, 자본재	55.6	150.2	9.0	4.9	5.6	-0.4	1.9	2.3
건강관리	32.2	51.7	11.5	1.7	2.8	1.6	3.0	1.3
IT하드웨어	75.1	74.4	15.3	3.7	2.1	1.6	2.8	1.2
철강	329.3	296.7	-8.2	9.6	8.9	4.2	4.8	0.7
건설, 건축관련	2.7	26.1	19.1	0.5	0.3	-0.1	0.2	0.3

주1: 2021년 9월 24일(금) 종가 기준

주2: 26개 업종 중 2H21 영업이익 변화율 (+), 변화율 차이(B-A)(+)인 6개 업종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가총액 3,000억원,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3개 이상인 기업 중에서 1) 2022년 영업이익 증가율 +10% 이상, 2) 3Q21, 2H21 2022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율 (+), 3) 2021년 컨센서스 변화율 대비 2022년 컨센서스 변화율이 큰 기업을 선정했다(표 2 참조).

표 2. 올해보다 내년 전망이 더 긍정적인 기업 (조원, %, %p)

종목코드	종목명	시장	업종명	시가총액	주가상승률		영업이익 증가율(YoY)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율(1M)				
					1M	3M	3Q21	2021년	2022년	3Q21	2H21	2021년(A)	2022년(B)	차이(B-A)
A033290	코웰패션	KQ	화장품, 의류	0.70	-1.6	24.7	24.0	25.5	34.2	1.3	1.2	4.7	9.6	4.9
A101160	월덱스	KQ	반도체	0.38	-2.2	-6.2	13.3	22.0	27.7	4.7	7.4	0.4	5.3	4.8
A195870	해성디에스	KS	반도체	0.74	5.6	9.6	69.6	66.4	21.3	5.0	6.4	3.7	8.0	4.3
A383220	F&F*	KS	화장품, 의류	5.60	4.3	34.4	404.8*	70.7*	30.9	5.2	4.3	2.5	5.8	3.3
A020150	일진머트리얼즈	KS	IT하드웨어	4.00	14.2	20.9	126.5	77.6	53.5	12.4	10.8	10.0	12.9	2.9
A104830	원익머트리얼즈	KQ	화학	0.42	4.7	-4.5	8.5	9.0	17.1	1.7	4.0	2.1	4.9	2.8
A247540	에코프로비엠	KQ	IT가전	10.32	48.5	118.8	96.8	121.5	66.7	3.3	3.0	3.4	5.4	2.0
A12287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KQ	미디어, 교육	0.98	-11.8	-2.4	573.6	659.6	43.8	6.6	0.9	2.7	4.7	2.0
A352820	하이브	KS	미디어, 교육	10.47	-7.1	-16.8	88.1	49.9	77.2	5.1	3.2	1.8	3.8	1.9
A003070	코오롱글로벌	KS	건설, 건축관련	0.75	43.2	22.8	20.4	36.5	10.6	6.9	7.4	6.1	7.9	1.8
A009150	삼성전기	KS	IT하드웨어	13.33	4.1	1.7	33.0	70.5	10.6	3.3	2.1	1.1	2.9	1.8
A005300	롯데칠성	KS	필수소비재	1.38	8.0	4.6	20.1	70.2	13.6	0.9	2.2	0.7	2.4	1.7
A004000	롯데정밀화학	KS	화학	2.40	39.9	49.5	153.0	54.6	17.4	10.5	8.4	4.7	6.2	1.5
A214450	파마리서치	KQ	건강관리	0.91	-9.1	1.5	51.6	61.5	24.2	5.0	7.6	1.4	2.7	1.4
A243070	휴온스	KQ	건강관리	0.62	0.5	-6.7	1.4	7.0	14.6	1.0	3.7	0.1	1.3	1.3
A267260	현대일렉트릭	KS	기계	0.93	11.2	29.8	-16.7	36.6	27.1	3.5	6.0	2.3	3.4	1.2
A068400	SK렌터카	KS	운송	0.59	3.3	-7.4	34.7	33.5	18.2	2.9	6.0	3.6	4.1	0.4
A002990	금호건설	KS	건설, 건축관련	0.48	7.9	2.8	38.4	54.5	16.6	5.8	5.5	3.8	4.0	0.2

주1: 2021년 9월 24일(금) 종가 기준

주2: F&F 인적분할로 F&F홀딩스의 3Q20, 2020년 영업이익과 F&F의 3Q21, 2021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비교

주3: 3Q21F, 2H21 영업이익 변화율은 +0.3% 이상, 2022년 영업이익 변화율은 +1%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체별 매매 동향

2021. 9. 28(화)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83.0 / 5일 -15366.5)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3427.2 / 5일 10322.6)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서비스업	301.6	-571.8	의약품	-331.9	-4,693.3	전기전자	2,052.4	6,080.3	운수장비	-560.5	-2,839.0
화학	153.0	-1,666.0	운수장비	-230.9	-724.2	화학	1,199.8	2,233.0	서비스업	-422.2	-183.7
통신업	128.4	4.1	철강금속	-119.6	-1,403.4	운수창고업	552.3	1,261.5	의약품	-236.7	2,476.5
보험업	94.4	39.0	비금속광물	-62.0	257.7	금융업	481.0	852.2	철강금속	-155.0	-210.3
건설업	66.2	158.0	음식료품	-24.0	9.2	은행	192.8	-332.1	유통업	-8.5	-313.2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KODEX 레버리지	377.1	-166.2	KODEX 200선물인버스2X	-420.1	397.2	삼성전자	1,006.0	6,831.4	카카오	-396.6	-771.4
LG화학	292.9	-388.0	TIGER 2차전지테마	-357.2	-383.8	SK하이닉스	321.3	487.4	효성첨단소재	-301.2	163.5
크래프톤	290.3	769.5	SK바이오사이언스	-234.4	-3,894.5	SK이노베이션	303.1	120.7	현대차	-273.0	362.3
S-Oil	203.4	309.4	NAVER	-205.6	-593.3	SKC	294.6	220.9	셀트리온	-261.0	880.4
삼성전기	191.1	-332.5	삼성전자우	-156.9	65.4	대한항공	241.3	500.7	엔씨소프트	-228.2	-546.2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182.5	-390.8	TIGER 2차전지테마	-138.5	-83.7	두산퓨얼셀	205.4	-112.1	TIGER 2차전지테마	-223.4	-313.3
SK텔레콤	112.1	125.6	현대차	-126.3	-711.3	팬오션	189.2	17.8	LG전자	-197.5	-497.8
하이브	110.8	73.0	POSCO	-108.7	-882.0	삼성SDI	186.3	153.4	POSCO	-147.0	381.4
현대중공업	98.1	1,753.1	효성첨단소재	-103.7	-112.0	카카오뱅크	182.0	-268.2	KODEX 레버리지	-136.1	-120.6
LG이노텍	96.4	-60.2	TIGER 2차전지테마	-103.3	-162.8	HMM	167.5	741.9	기아	-129.3	752.9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1526.1 / 5일 -2071.2)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423.5 / 5일 387.6)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오락문화	79.0	26.7	IT부품	-340.0	-833.5	일반전기전자	434.2	99.5	IT부품	-393.0	642.2
운송장비,부품	55.6	-104.1	제약	-313.3	-201.5	오락문화	123.1	-150.2	제약	-188.8	267.0
화학	20.5	50.0	반도체	-181.2	456.9	운송장비,부품	120.4	-34.0	디지털컨텐츠	-103.3	-313.0
컴퓨터서비스	15.8	-2.0	일반전기전자	-175.4	-400.1	금속	110.8	-71.9	반도체	-103.2	-422.8
금속	11.2	53.0	디지털컨텐츠	-163.6	-20.5	소프트웨어	103.5	143.1	화학	-70.3	-58.9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스튜디오드래곤	103.6	26.8	엘앤에프	-225.4	-578.5	에코프로비엠	287.1	139.9	대주전자재료	-175.7	269.2
에이치엘비	63.6	-82.5	에코프로비엠	-191.4	-347.9	삼강엠앤티	90.1	1.8	필러비스	-143.2	-94.2
에이치엘비생명과학	49.2	-29.8	바이오플러스	-189.9	0.0	에이치엘비	76.3	69.1	에코프로	-121.3	-2.3
데브시스터즈	29.6	16.2	테스나	-145.8	-22.1	에스엠	71.0	18.6	엘앤에프	-115.9	483.3
동진세미켐	29.6	443.2	위메이드	-129.1	-184.8	원익피앤이	47.2	30.9	바이오니아	-72.6	-37.7
상신이디피	28.9	-10.6	바이젠셀	-78.5	5.2	위메이드	42.3	-78.5	셀트리온헬스케어	-71.4	224.7
인텔리안테크	24.3	9.9	엔케이맥스	-72.1	7.8	아난티	41.3	-162.8	동진세미켐	-51.8	190.7
JYP Ent.	21.8	-14.7	원티드랩	-64.3	-61.4	대아티아이	34.0	-22.8	이녹스첨단소재	-50.3	-45.7
유니셀	20.1	3.9	네오위즈	-49.0	116.8	안트로젠	33.5	-19.3	리파스	-40.5	-9.7
솔브레인홀딩스	16.3	45.2	대주전자재료	-46.9	-143.8	휴젤	31.1	-45.2	셀트리온제약	-37.2	-43.0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 ETF 거래는 LP 거래량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등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TIGER 200선물레버리지	10,418.0	KODEX 200	-20,884.0	크래프톤	25,820.3	NAVER	-22,876.1	
LG화학	6,722.1	삼성전자	-10,565.0	LG화학	21,417.3	삼성전자	-17,575.8	
일진머티리얼즈	6,112.3	KODEX 레버리지	-10,273.7	S-Oil	12,505.5	삼성전자우	-13,207.8	
SK리츠	4,360.5	효성첨단소재	-5,767.0	삼성전기	10,028.5	현대차	-11,275.9	
삼성전기	4,164.7	현대차	-5,022.1	LG이노텍	8,360.2	삼성SDI	-10,085.8	
크래프톤	3,327.5	유니드	-4,221.6	OCI	7,119.3	SK하이닉스	-9,784.1	
GS	3,199.4	더존비즈온	-4,187.4	현대중공업	6,346.8	KB금융	-7,474.4	
현대로템	2,905.4	코오롱인더	-4,048.4	삼성바이오로직스	5,187.2	카카오	-6,201.7	
HANARO 200	2,856.7	현대모비스	-3,386.3	하이브	3,851.5	한미약품	-5,500.0	
KODEX 200선물인버스2X	2,829.1	기아	-3,363.8	제이콘텐트리	3,789.8	셀트리온	-5,305.7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30,203.5	TIGER 2차전지테마	-36,850.2	KODEX 200	12,099.6	삼성전자	-10,308.9	
KODEX 200	2,128.6	KODEX 2차전지산업	-31,332.4	LG화학	4,170.2	KODEX 삼성그룹	-6,780.2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1,380.7	TIGER KRX2차전지K-뉴딜	-11,025.8	TIGER 200	3,171.4	ARIRANG 200	-5,931.4	
KODEX 건설	1,123.4	TIGER 미국나스닥100	-1,985.9	SK텔레콤	3,143.0	SK아이이테크놀로지	-3,516.3	
KODEX 차이나항셍테크	875.9	제이알글로벌리츠	-1,777.0	삼성전기	1,951.8	삼성전자우	-3,312.4	
HANARO Fn K-반도체	870.1	KODEX WTI원유선물(H)	-1,359.0	KODEX 단기채권PLUS	1,898.0	KBSTAR 200	-2,932.0	
HANARO Fn전기&수소차	791.0	TIGER 미국S&P500선물(H)	-1,096.9	하이브	1,799.4	SK하이닉스	-2,787.1	
KODEX 자동차	697.9	KODEX 미국FANG플러스(H)	-925.0	대한항공	1,600.0	현대차	-2,423.1	
TIGER 200 중공업	671.7	KODEX 레버리지	-873.7	KODEX 미국달러선물	1,558.2	NAVER	-2,178.6	
HANARO e커머스	585.9	TIGER KRX게임K-뉴딜	-653.4	TIGER 200 IT	1,375.9	기아	-2,155.1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LG화학	15,866.8	29,290.9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22,342.6	-35,716.4	
크래프톤	13,381.0	29,031.2	KODEX 200선물인버스2X	-607.9	-42,010.1	
S-Oil	7,864.6	20,343.6	효성첨단소재	-30,119.7	-10,372.0	
대한항공	24,126.6	2,200.9	현대차	-27,298.3	-12,633.7	
삼성전기	6,190.8	19,111.0	셀트리온	-26,101.6	-6,833.7	
두산퓨얼셀	20,544.6	4,019.5	엔씨소프트	-22,817.6	-4,443.8	
팬오션	18,924.2	3,812.3	POSCO	-14,700.1	-10,874.8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4,145.2	18,253.3	LG전자	-19,749.7	-5,261.3	
SK텔레콤	10,851.0	11,208.4	기아	-12,934.3	-7,413.6	
카카오뱅크	18,204.3	2,409.8	CJ CGV	-9,377.1	-6,380.2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등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스튜디오드래곤	2,359.2	엘앤에프	-5,422.7	스튜디오드래곤	3,119.7	테스나	-4,882.4	
아난티	2,089.4	바이오플러스	-2,204.0	인텔리안테크	2,292.8	대주전자재료	-3,176.1	
유니셀	1,981.7	쇼박스	-2,118.1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047.4	에코프로비엠	-2,771.7	
새로닉스	1,609.0	테스나	-2,057.2	상신이디피	1,439.8	이녹스첨단소재	-2,034.3	
에이치엘비	1,575.6	셀트리온제약	-1,523.4	동진세미켐	1,286.9	엘앤에프	-1,946.9	
인성정보	1,469.4	SK머티리얼즈	-1,521.2	원익피앤이	843.5	SK머티리얼즈	-1,781.0	
국전약품	1,148.0	바이오니아	-1,507.2	삼강엠엔티	771.9	레고컴바이오	-1,638.0	
에이치엘비생명과학	1,096.6	네오위즈	-1,336.2	하나머티리얼즈	767.3	텍스터	-1,368.7	
신원종합개발	1,045.3	휴마시스	-1,231.2	신흥에스이씨	737.5	아프리카TV	-1,225.9	
솔브레인홀딩스	1,020.9	유바이오로직스	-1,213.1	휴온스글로벌	624.3	덕산네오룩스	-1,213.0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이오테크닉스	235.7	SK머티리얼즈	-941.6	스튜디오드래곤	590.8	에코프로비엠	-9,386.5	
에이텍	205.7	원티드랩	-675.0	상신이디피	561.6	테스나	-1,433.4	
필어비스	178.6	에코마케팅	-336.5	솔브레인홀딩스	504.1	엘앤에프	-764.3	
파인테크닉스	152.4	테스나	-201.3	와이지엔터테인먼트	500.4	오스코텍	-536.1	
민앤지	151.3	에이프로	-160.5	유니셀	475.5	덕산네오룩스	-535.6	
상신이디피	91.7	동화기업	-144.4	에이치피오	305.9	NHN한국사이버결제	-525.1	
메드팩토	62.7	LX세미콘	-74.2	휴메딕스	273.3	동진세미켐	-473.5	
동국제약	46.8	이녹스첨단소재	-49.7	씨젠	251.4	LX세미콘	-443.5	
모두투어	41.3	엘앤에프	-41.5	천보	225.4	필어비스	-410.3	
광진원텍	25.8	셀트리온헬스케어	-39.0	티앤엘	222.1	삼천당제약	-293.2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에이치엘비	7,631.7	6,360.5	엘앤에프	-11,586.3	-22,535.3	
삼강엠엔티	9,008.6	1,434.9	대주전자재료	-17,568.6	-4,694.8	
에이치엘비생명과학	2,309.3	4,921.5	바이오플러스	-770.4	-18,993.7	
원익피앤이	4,723.8	1,157.3	테스나	-3,300.2	-14,582.4	
상신이디피	2,013.8	2,889.4	에코프로	-12,132.7	-3,747.8	
데브시스터즈	904.3	2,961.8	필어비스	-14,318.9	-830.5	
휴젤	3,112.8	709.1	셀트리온헬스케어	-7,137.1	-3,638.7	
새로닉스	1,951.9	1,616.1	바이오니아	-7,256.9	-1,568.1	
대아티아이	3,403.5	80.2	이녹스첨단소재	-5,026.1	-3,568.9	
유니셀	1,371.9	2,014.0	엔케이맥스	-351.4	-7,207.2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2021. 9. 28 (화)

한국/아시아

	Price	1D	1W	1M	3M	1Y
KOSPI (9/27)	3,133.64	0.27	-0.22	-0.01	-4.66	37.51
KOSDAQ (9/27)	1,034.82	-0.21	-1.08	1.11	1.20	28.03
KOSPI200 (9/27)	410.97	0.28	0.00	0.18	-6.07	35.38
일본 NIKKEI225 (9/24)	30,248.81	2.06	-0.82	9.10	4.07	31.02
중국 상해종합 (9/24)	3,613.07	-0.80	-0.02	2.05	0.15	12.10
홍콩 항셱 (9/24)	24,192.16	-1.30	-2.92	-5.84	-17.40	3.78
홍콩 HSCIE (9/27)	8,604.99	0.00	-0.39	-3.94	-20.01	-7.50
대만 TWSE (9/24)	17,260.19	1.07	-0.10	1.26	-1.39	40.73
인도 SENSEX (9/24)	60,048.47	0.27	1.75	7.34	13.46	64.28
베트남 VSI (9/24)	1,351.17	-0.12	-0.11	3.18	-2.80	48.71
인도네시아 JCI (9/24)	6,144.82	0.03	0.19	0.52	2.03	26.89

(p, %)

미국/유럽

	Price	1D	1W	1M	3M	1Y
미국 DowJones (9/24)	34,798.00	0.10	0.62	-1.72	1.06	29.77
미국 S&P500 (9/24)	4,455.48	0.15	0.51	-0.91	4.08	37.24
미국 NASDAQ (9/24)	15,047.70	-0.03	0.02	0.04	4.79	41.00
유로 STOXX50 (9/27)	4,185.49	0.65	3.51	-0.13	1.90	33.42
독일 DAX30 (9/27)	15,663.46	0.85	3.51	-1.19	-0.17	25.62
영국 FTSE100 (9/27)	7,095.18	0.62	2.77	-0.74	0.11	21.44
브라질 보베스파 (9/24)	113,283.00	-0.69	1.65	-6.24	-10.98	16.77
러시아 RTS(\$)(9/24)	1,747.56	-0.32	0.14	5.68	4.51	46.98
필라델피아반도체 (9/24)	3,453.92	-0.10	0.96	2.41	6.55	60.84
나스닥헬스케어 (9/24)	1,293.07	-1.56	-1.50	-0.63	1.46	29.24
VIX (9/27)	17.77	0.11	-30.88	8.42	10.92	-32.64

(p, %)

환율

	Price	1D	1W	1M	3M	1Y
원/달러 (9/27)	1,176.55	-0.01	-0.89	0.64	4.25	0.34
달러/유로 (9/27)	1.17	-0.09	-0.14	-0.73	-1.58	0.67
엔/달러 (9/27)	110.67	-0.05	1.12	0.76	0.13	4.82
원/엔(100엔) (9/27)	1,063.44	-0.19	-2.03	0.52	4.02	-4.35
위안/달러 (9/27)	6.46	-0.12	-0.11	-0.21	-0.08	-5.35
달러인덱스 (9/27)	93.28	-0.05	0.00	0.64	1.34	-1.44
원/헤알 (9/27)	220.52	-0.02	-1.02	-1.82	-3.21	4.43
헤알/달러 (9/24)	5.34	0.61	0.87	2.31	8.14	-3.17

(각국 통화 단위, %)

에너지

	Price	1D	1W	1M	3M	1Y
원유 WTI (9/27)	74.84	1.16	6.47	8.87	2.55	85.94
원유 Brent (9/27)	79.04	1.22	6.93	8.72	5.72	88.55
원유 Dubai (9/27)	75.71	1.57	6.35	9.60	4.77	82.13
휘발유 NYMEX (9/27)	220.00	0.57	4.01	-3.26	-1.74	81.19
천연가스 NYMEX (9/27)	5.31	3.31	6.52	21.51	46.28	148.25
석탄 ICE (9/24)	172.50	-0.20	2.31	15.85	58.99	230.14
플라실리콘 (9/22)	28.79	0.84	0.84	4.88	4.20	165.59
태양광 모듈 (9/22)	0.20	0.00	0.00	0.00	-2.49	14.62

(US\$, %)

국내금리/채권

	Price	1D	1W	1M	3M	1Y
한국 기준금리 (9/27)	0.75	0.00	0.00	0.00	25.00	25.00
CD(91일) (9/24)	0.00	-102.00	-101.00	-77.00	-67.00	-63.00
LIBOR(3개월) (9/24)	0.13	0.00	0.84	0.85	-1.38	-10.10
국고3년 (9/24)	0.00	-155.80	-153.50	-143.50	-144.10	-85.70
국고10년 (9/24)	0.00	-209.90	-206.80	-193.60	-210.00	-143.70
회사채3년(AA-) (9/24)	0.00	-199.60	-197.80	-186.30	-196.90	-220.00

(%, bp)

금속

	Price	1D	1W	1M	3M	1Y
철광석 DCE(위안) (9/27)	702.00	1.96	0.43	-26.18	-49.37	-22.86
중국 열연(위안) (9/27)	5,776.00	0.19	-0.05	2.25	4.87	48.87
구리 LME (9/24)	9,271.00	0.22	-1.97	-1.12	-2.00	41.89
알루미늄 LME (9/24)	2,918.00	-1.12	-0.31	10.95	18.14	68.18
금 COMEX (9/27)	1,757.50	0.45	-0.24	-3.25	-0.35	-5.40
은 COMEX (9/24)	22.39	-1.12	0.42	-5.83	-14.18	-3.16

(US\$, %)

해외 채권

	Price	1D	1W	1M	3M	1Y
미국채 2년 (9/27)	0.29	-0.20	5.80	7.10	3.70	15.80
미국채 10년 (9/27)	1.45	-0.70	13.50	14.00	-2.60	79.00
독일국채 10년 (9/27)	-0.24	-0.90	8.30	18.60	-6.70	29.20
일본국채 10년 (9/27)	0.06	0.00	0.60	3.30	-0.20	4.90
인도국채 10년 (9/27)	6.19	1.10	5.50	-6.30	15.60	15.20
중국국채 10년 (9/27)	2.88	0.60	-0.40	0.20	-22.50	-25.80
브라질국채 10년 (9/24)	10.95	5.60	-18.90	62.90	175.00	369.90
미국하이일드채권지수(p) (9/24)	2,451.83	-0.08	-0.13	0.77	1.48	12.36
FTSE글로벌리츠지수(p) (9/27)	3,484.01	0.19	-0.08	-2.17	1.90	40.18

(%, bp, 하이일드/리츠지수 변화율: %)

농산물/운송/반도체

	Price	1D	1W	1M	3M	1Y
옥수수 CBOT (9/27)	524.25	-0.47	0.48	-6.05	-24.51	43.53
소맥 CBOT (9/27)	725.00	0.17	3.46	0.90	13.33	33.21
대두 CBOT (9/27)	1,288.00	0.23	2.02	-5.24	-5.28	28.48
설탕 ICE (9/24)	19.10	-2.00	-0.42	-3.19	13.02	48.75
천연고무 TOCOM(엔) (9/27)	191.70	2.68	-1.44	-1.19	-18.84	-11.86
BDI (p) (9/24)	4,644.00	-0.15	8.63	10.76	42.67	189.35
SCFI (p) (9/24)	4,643.79	0.46	0.46	7.00	22.68	229.45
DDR4 8G (9/27)	4.08	-0.49	-0.97	-7.69	-15.53	50.00
NAND TLC 128G (9/27)	2.06	0.00	0.00	-1.90	-0.48	24.10

(US\$, %)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시장 주요 지표 II

2021. 9. 28 (화)

유가증권시장			09/27 (월)	09/24 (금)	09/23 (목)	09/17 (금)	09/16 (목)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PI		3,133.64	3,125.24	3,127.58	3,140.51	3,130.09
	이동평균	20일	3,153.56	3,154.22	3,154.87	3,153.00	3,149.00
		60일	3,203.25	3,205.80	3,208.75	3,211.67	3,214.09
		120일	3,202.05	3,201.88	3,201.56	3,201.01	3,200.42
	이격도	20일	99.37	99.08	99.13	99.60	99.40
		60일	97.83	97.49	97.47	97.78	97.39
	거래대금(억원)		121,401.0	125,582.4	140,091.4	149,376.6	122,595.2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60	50	50	60	60
	ADR		90.29	96.16	101.64	115.63	108.10
코스닥시장			09/27 (월)	09/24 (금)	09/23 (목)	09/17 (금)	09/16 (목)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DAQ		1,034.82	1,037.03	1,036.26	1,046.12	1,039.43
	이동평균	20일	1,038.94	1,038.09	1,036.90	1,034.74	1,030.83
		60일	1,037.94	1,037.74	1,037.42	1,037.02	1,036.46
		120일	1,014.86	1,014.32	1,013.72	1,013.06	1,012.32
	이격도	20일	99.60	99.90	99.94	101.10	100.83
		60일	99.70	99.93	99.89	100.88	100.29
	거래대금(억원)		92,605.3	116,090.4	89,448.6	100,157.0	98,245.9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50	50	50	50	50
	ADR		79.69	83.24	87.69	99.07	108.10
자금지표			09/27 (월)	09/24 (금)	09/23 (목)	09/17 (금)	09/16 (목)
국고채 수익률(3년, %)			-	1.58	1.56	1.54	1.51
AA-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 %)			-	2.03	2.01	1.98	1.95
원/달러 환율(원)			1,176.55	1,176.67	1,175.78	1,175.46	1,171.70
원/100엔 환율(원)			1,063.44	1,065.51	1,064.85	1,074.20	1,070.55
CALL금리(%)			-	0.75	0.74	0.80	0.77
국내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	95	2,382	-572
해외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	-4	-88	41
주식혼합형펀드 증감(억원)			-	-	-9	-655	15
채권형펀드 증감(억원)			-	-	-854	4,202	-1,673
MMF 잔고(억원)			-	-	1,519,086	1,524,530	1,529,813
고객예탁금(억원)			-	678,228	694,882	693,626	689,174
미수금(억원)			-	2,108	2,356	2,290	2,588
신용잔고(억원)			-	252,840	253,536	253,853	254,562
해외 ETF 자금유출입			09/27 (월)	09/24 (금)	09/23 (목)	09/17 (금)	09/16 (목)
한국 관련 ETF(억원)			-	0.0	-69.0	0.0	187.8
이머징 관련 ETF(억원)			-	115.8	7.4	-101.0	4.6
아시아 관련 ETF(억원)			-	-86.7	0.6	-39.9	-2.5
글로벌(선진) 관련 ETF(억원)			-	97.4	98.7	-100.2	44.6
Total(억원)			-	126.5	37.7	-241.1	234.5

* 해외상장 ETF는 1) 미국, 유럽, 홍콩 시장에 상장된 한국 노출도가 있는 ETF를 모두 선별한 후, 2) 동 ETF들의 일간 자금유입액 중에서 한국의 비중을 계산하여 총합한 액수. 추종 인덱스의 리밸런싱은 분기별로 이뤄지나 비중은 지수 레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략적인 추정치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음